

#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지는 맑고 고운 소리

광주 메디컬 피부과  
메디필싱어즈

간호사·의사 10명 직원들  
자투리 시간 이용 화음 맞춰

오전 진료를 마친 병원 로비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흘러 나왔다. 점심 식사를 마친 간호사와 의사 10명이 노래 연습에 한창이다. 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른다. 박현 불교방송합창단 지휘자의 지도에 따라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며 화음을 맞춰나간다. 이날 부른 노래는 가곡 '별'과 'Mother of mine'. '별'의 아름다운 화음에, 듣는 사람도 행복해진다.

마침 취재를 갔던 지난 9일 저녁에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가 주최하는 행사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직원들은 아직은 어설피기도 하지만 첫 무대를 갖는다는 생각에 살짝 긴장된 듯했다. 주최측에서 메디필싱어즈라는 근사한 이름도 달아줬다.

연습이 끝나자 직원들은 배웠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일상으로 복귀했다. 오후 진료를 시작하며 환자들이 맞는 직원들의 모습이 가깝다.

광주 메디컬피부과 직원들에게 문화 예술 활동은 곧 '생활'이다. 이십대 새내기 직원부터 10년 넘게 함께한 40대 베테랑 간호사, 50대 원장까지 전직원이 함께 언제나 '무언가'를 배운다. 가곡을 배우기 전에는 전직원이 기타를 배웠다. 장 원장은 강습을 위해 직원들이 악기를 모두 구입해줬다. 강사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가수 기현수씨였다. 그 전에는 발리댄스를 배우기도 했다.

직원들이 문화와 친근하게 된 데는 장흥식(52)의 역할이 크다. 장 원장은 문화에 관심이 많다. 탁월한 실력으로 스포츠댄스 챔피언을 지내기도 한 그는 지금은



우리가곡부르기 무대에 선 '메디필싱어즈'

지난 9일 호신대에서 열린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 행사에서 노래하는 메디필 피부과 직원들.

기타 강습·발리댄스 배우고 난타·시 낭송도 계획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참가해 공연도  
“문화는 늘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거죠”

노래에 푹 빠져 있고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날도 진료 차트 한켠에 이탈리아 가곡 악보를 놓아 두고 가사를 외우고는 했다. 이번엔 직원들과 가곡을 배우게 된 이유는 장 원장 자신이 가곡을 부르며 위로받고 행복했기 때문이다.

장 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문화 활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직원들이 계속 반복되는 딱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어 있어요. 릴렉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 활동이라는 게 막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

끼게 되요. 새로운 걸 하는 재미도 있고요. 사실, 뭔가를 배우려고 하면 시간을 내야 하고, 어디론가 가야하고 돈도 필요하죠. 저희는 점심 시간같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없어요.”

장 원장은 “저를 포함해 모든 직원이 참여하다보니 서로 대화도 많아지는 등 자연스럽게 직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업무 집중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직원들과 대화를 통해 함께 배우고, 즐길 것을 결정한다. 최근에는 가곡을 부르다 보니 아름다운 노랫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그래서 시낭송을 한 달에 한번씩 하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당초 배우려 했던 '난타'도 목록에 올라 있고, 책을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고려중이다.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김미선(44)씨는 “기타를 배울 때는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가곡을 배우면서 화음을 넣을 때는 짜릿한 기분도 든다”고 말했다.

박현씨는 “음악을 들을 기회는 많지만 직접 노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 직원들은 함께 노래하고 대화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노래를 하고 나면 오후 시간의 활력소가 된다”고 직원들이 전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직원들과 이런 저런 걸 배운다고 이야기하면 다들 관심은 갖는데 막상 실행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작은 실천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장원장은 문화가 거창한 게 아니라고 말한다. 늘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게 바로 문화라는 설명이다. /김미선기자 mekim@kwangju.co.kr



최세경 위원, 린 사오찬 교수, 사사키 교수, 노다 교수

## 아시아 문화융성·동반성장 방안 모색

2014 아시아문화포럼

22일 전남대 용봉홀서 열려

아시아 문화전문가들이 문화협력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미래발전 방안을 찾는다는.

2014 아시아문화포럼이 '아시아의 문화적 동반성장'을 주제로 오는 22일과 오는 10월1일 두차례 광주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과 연계해 한국·중국·일본 3국을 비롯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12개국의 문화예술계 전문가 42명이 대거 참석,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전남대학교 용봉홀에서 열리는 Pre 2014아시아문화포럼은 '아시아의 동반성장과 동아시아문화도시(Mutual Growth of Asia and East Asia City of Culture)'를 주제로 열린다. 이어 본행사는 오는 10월 1~2일 전남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아시아의 문화융성과 동반성장(Cultural Prosperity and Mutual Growth of Asia)'을 주제로 개최된다.

제1세션에서는 '문화교류와 동아시아문화공동체'라는 주제로 정성구 아시아문화학회 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동아시아문화공동체 간의 문화교류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한다.

창조도시연구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사사키 마사유키 교수는 '동아시아문화도시를 통한 한·중·일 3국의 도시간 문화교류의 의의와 가능성'에 대해 발표한다. 취업자수학 연구소장인 린 사오찬 교수는 '동아시아문화공동체의 발전계획과 취업자수학의 문화교류'로 주제발표를 한다.

제2세션에서는 '문화산업과 문화공동체'를 주제로 김명중 호남대학교 교수,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다 구니히로 돗토리대학교 교수, 차이 원송 취안저우시 공예미술협회 상무부회장이 참여해 한·중·일 도시의 문화산업 및 문화공동체의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 '오월의 파랑새' 작가와 만남·세미나

광주시립미술관은 2014 민주·인권·평화화 '오월의 파랑새'(6월8일까지)와 연계해 21일 오후 2~4시 작가와의 만남 행사와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 씨가 참여해 '정치적 눈물'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김씨는 정치의 사회적 속성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주제로, 정치적 폭력과 폭력의 주제, 주제와 객체의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과 정치적 구조에 따른 냉소적인 시선을 담아낼 예정이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조선대 역사문화학회 이사장인 김광철 교수가 '호남 정신사의 맥, 동학에서 오월까지'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문의 062-613-7143. /김경민기자 kki@

## 제17회 한림문학상에 수필가 장정식

한림문학재단(이사장 박형철)이 수여하는 제17회 한림문학상에 수필가 장정식(사진) 씨가 선정됐다.

한림문학상은 전통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작가에게 한림문학재단이 수여하는 상이다. 1996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차범석(1924~2006), 송지행, 최승범, 문병관, 손광은, 문순태, 정소파(1912~2013), 장백일 씨 등이 수상했다.

순천 출신인 장정식 수필가는 그동안 향토성 짙은 작품으로 자연과 인생을 관조할

뿐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질타하는 작품을 써왔다. 지금까지 '다형 김현승 시어에 관한 연구' 논문집과 '다도해에서 천 백일' '시가 있는 피서지' 등을 펴냈으며 한국수필문학상, 소설문학상, 광주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2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문화센터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문의 010-3627-1810.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롭이가 아픈 할머니 위해 가족음악회를 열었어요

동화작가 양정숙 씨  
'새롭음악회'출간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무엇일까? 유치원이란 무엇일까?

동화작가 양정숙 씨가 '새롭음악회'(심미안 간)는 어린아이의 눈으로 가족의 의미를 묻는다. 동화는 평범한 한 어린이가 아픈 할머니를 위해 연출한 가족음악회

에 관한 이야기다.

주인공 새롭이는 어느 날 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집을 방문한다. 평소와 달리 눈이 아픈 할머니를 보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 새롭이는 유치원에서 경험했던 음악회를 할머니를 위해 열어야겠다고 마음먹는다.

결국 새롭이 덕분에 온 가족은 훈훈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된다. 맘에 흠뻑 젖은 새롭이의 모습은 잔잔한 감동

을 준다.

동화는 한 어린아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또래 공동체 울타리인 유치원의 의미까지도 생각하게 한다.

한편 양씨는 1995년 '수필과비평'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대한문학상, 여수해양문학상, 광주전남 아동문학인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한빛타워 기공식 안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유한회사 한빛가람 전사원의 숙원사업인 기공식을 개최 하오니 성원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4. 5.23(금) 11:00  
장 소 : 나주시 빛가람동 297-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 행 사 : (유)한빛가람  
신 탁 회 사 : 국 제 신 탁  
분양대행사 : (주) 오 늘  
문 의 전 화 : (061)333-7077  
010-3505-8005

###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델/투룸/전원주택

-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살)현재 상업중 매 31억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델,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 나주시 관정동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용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도로변 배 과수원 (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병충하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 나주시 봉황면 죽서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력 유재 관

급히 찾고있습니다

- 1)임야및 밭 급구 - 신산동,농장용,태양광용 구매자 대기중
- 2)땅 구해요 - 빌라상가 건축할뿐 다수 대기중
- 3)빌딩,모델,주택도 찾아요 - 빠르게 연결해드립니다

급처분합니다

- 1)광주 계림동 모델 단돈 5,000만원에 가져가세요
- 2)광주 금남로 요지 카바레 1,322㎡ 땀처리합니다
- 3)하루매상100만원 국도변 로얄 기든이 매물로나왔습니다

다음카페 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하면 하루 하루가 살맛납니다

부동산 급매물 자료도 많고 건강정보도 수록됩니다 부동산도 무료광고되구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 첨단지구

CGV영화관 옆 건물  
3층 근린상가 건물매매

노후보장!  
월 수익형!

감정가 18억4천4백만원  
매매가 16억

또는 5억 투자하시고  
매월 월세 300만원씩 받아 가실분

문/의/전/화  
010-2804-0632